세패자 세포자 하소자 됩시다!

(이사야 46:1~13)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패자 세포자 하소자 됩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패자 세포자 하소자 됩시다!'
'수포자, 영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하는데 수학을 포기한 자를 '수포자'라고 하고 영어를 포기한 자를 '영포자'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패러디해서 세상에서 패배한 자를 '세패자'라고 했고, 세상을 포기한 자를 '세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소유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를 '하소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이상은 물론 하나님만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비현실적이라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도 특정한 대상에 대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합니다. 엄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녀를 기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결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인의 궁극적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소유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패자가 되어야 하고 세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사야 당시의 유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이 결국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멸절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선민의 나라인 유다를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 집어삼킬 강력한 나라들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파괴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복할 나라들의 우상조차 나뭇조각과 쇳조각으로 만드실 것이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체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마디로 너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업힌 아기는 주체가 되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상숭배는 일정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원인을 생각합니다. 우선 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푸념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비롯한 환경과 배경을 탓합니다. 성도들 입에서도 팔자 탓을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는 일이 안 풀린다면 이유는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거나, 내 쪽에 이유가 있거나, 내가 하려는 일 자체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나와 세상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나의 육체까지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각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일이 안 풀릴 때에 하나님 쪽에 이유가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 쪽의 이유는 어제 말씀대로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출애굽 때 홍해의 물이 쌓였던 것처럼 억제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언제든지 그것들에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마음 안에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남겨두신 이유는 인간을 미

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은 하나님께 업혀서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주체가 되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는 일마다 잘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담게 되는 이유는 그 일이 잘 됨으로써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마음에 담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될 수 있고 사업도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대상들을 담은 상태로 관계하게 된 것입니다. 잘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일 자체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도 결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내가 기대한 것처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더 나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삶이 잘 안 풀리면 나의 주체성을 포기할 만도 한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려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의욕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상숭배가 나타납니다.

세속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장이라도 동원하려고 할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대통령이라도 움직이고자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을 동원해서 교육제도를 바꿔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또 자녀가 군대에 갈 때가 되면 국방부 장관을 동원해서라도 군대를 안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 있는 사람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사건을 보면 온 나라의 모든 측면에 손을 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욕만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상이 등장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놓고 자기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하는 말이 곧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우상은 대통령과 장관들보다도 힘이 세다, 재벌 총수보다도 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최면을 걸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경생활이 중요했기에 많은 우상이 비구름을 조절하고 수확을 늘리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삶에 대한 나의 주체성이 포기되지 않고 있

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가졌다고 여겨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은 어디까지나 나의 판단과 주도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침묵은 나의 말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살아있지 않기에 결코 스스로의 의견과 판단을 주장하지 않으며 숭배자의 마음을 결코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엇을 이루고 싶고 왜 그것을 이루고 싶고 얼마큼 이루고 싶은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주장이 없고 네가 잘못되었다며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매력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일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우상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나의 주체성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잘된 결말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밍웨이와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 일이 잘 풀렸지만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루고 싶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었으니 만족할 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마음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룰 만큼 이루었는데 마음에 질서와 만족이 없고 공허만 가득합니다. 앞뒤를 봐도 흑암만이 둘러싸고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룰 것이 남았다면 다시 의욕을 불태워보겠는데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음을 깨닫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제 LA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36살 되신 분이 8살의 딸과 6살의 아들과 2살의 딸을 데리고 친정어머니와 함께 LA에서 강릉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 친정어머니께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전에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LA에서는 그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들이 각자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번제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측근들이 되어가는 모습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세상적으로 속 시원하게 일이 잘 풀렸다는 간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면식이 있던 분이셨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소식을 중간 중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식이 끊어지면서 목사님께서 세상적으로 완전히 추락하신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인 절반이 나가게 되고 교회를 나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전도사님 내외분과 다시금 목회를 시작하셨지만 또 문제가 발생해서 또 다시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4명밖에 남지 않은 교인들과 함께 지하실에 예배처소를 얻어서 목회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오신 목사님들에 대해 이분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느냐 않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앞에서 말씀이 없으시고 듣기만 하신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많이 안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말이 없으시다가도 저와 대화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말이 많아지시는 분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속에 계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 분은 목회의 실패자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세패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몇 년 만에 뵈었는데도 제가 말할 틈을 안 주실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성도 4명과 함께 쫓기고 쫓겨서 지하실에 예배처소를 만든 것이 무슨 그렇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신이 나갔다고 여길 것입니다. 고작 4명의 성도를 데리고 지하실도 기적적으로 세를 얻어 교회를 하면서도 얼굴이 환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지에서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결코 세상적으로 잘 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니 삶이 형통해졌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니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죽을병에 걸렸다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일은 머리털만큼도 내 바람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보겠다는 이 주체성이야 말로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우상화시키고야 맙니다. 이렇게 끈질긴 주체성을 하나님이 꺾으시기 위해서는 그 주체성으로 하려는 모든 일들을 막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것은 세상적으로 안 된다는 소식뿐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한 과정임을 알기에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예 ‘십자가 복음방송은 세패자나 세포자를 위한 방송입니다’라는 간판을 내걸고 싶을 정도입니다. 세상에서 패배한 자들과 세상을 포기한 자들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만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과정이 없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소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본문 3~4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실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삶에 대한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체성을 포기하기 않기에 주체성이 없고 능력만 있다고 믿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는 서로서로 주체성을 포기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는 모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의 자녀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축하나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고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장로님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면 오히려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을까 우려하며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로 인해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음을 기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으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라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잠자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일이 평온하고 잘될 때에 하나님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철야기도를 하면서 차라리 형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관련된 한 일화를 말씀드려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과 같은 노회에 계신 박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박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께 십자가 복음방송을 알려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사모님께서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방송을 듣는 것을 따라 들으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 방송대로 하다가는 교회가 부흥은커녕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백 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며 예배당도 새로 지은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박 목사님께 '이제까지 하던 대로만 하자. 태 목사님의 설교만 듣지 않으면 목회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태 목사님 식으로 설교하다가는 목회가 끝장난다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고 외치면 당회에서도 십자가는 그만 좀 하라는 얘기가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나 당회의 말을 따르자니 박 목사님 자신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모님의 간절함을 가지고 세패자와 세포자에게 하소자가 되자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업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업히는 과정까지가 힘이 듭니다. 저는 지하실에 예배처소를 꾸리신 목사님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만만치 않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달려들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팔아야 보화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좋다고 여겨서 담고 있던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감사하세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통하는 형통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패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자발적으로 세상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업혀서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자발적인 세패자 세포자가 되고 하소자가 되어서 우뚝 서게 하시므로 나를 업고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